

베이스 기타 크로메틱 스케일 연습 활용 사례 연구

장문권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공연예술경영학과

e-mail: moongunz@daum.net

A Case Study on the Use of Chromatic Scale Practice on the Bass Guitar

Moon-Kweon Jang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Technology

요 약

본 논문은 베이스 기타를 처음 배우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연습 방법 중 하나인 크로메틱 스케일을 연주하는 방법이 실제 연주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는 가를 알아본다. 다양한 크로메틱 스케일 연습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지판의 수평 방향으로 각 프렛에 왼손가락 4개를 각각 배치하여 반음이 4개로 연결되게 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초기 연습 단계를 거쳐 중급 이상의 연습 단계를 거친 많은 학습자들조차도 이러한 연습 방법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왜 사용할 목적으로 훈련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른 채 막연히 손가락 악력을 높이거나 신경 분리 운동에만 초점을 두고 연습 해오고 있다. 본문에서는 4개의 반음이 연결되는 다양한 스케일 부분이나 기본적인 간단한 워킹베이스 연주 예시를 통해 학습자에게 크로메틱 스케일 연습 과정이 실질적인 응용 단계에서 어떻게 쓰이는 가를 제시한다. 사례와 예시를 통해 특정 연습 방법이 추후 어떠한 연주에서 어떻게 쓰임을 알고 연습 한다면 학습 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본문에 제시된 단편적인 사례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폭 넓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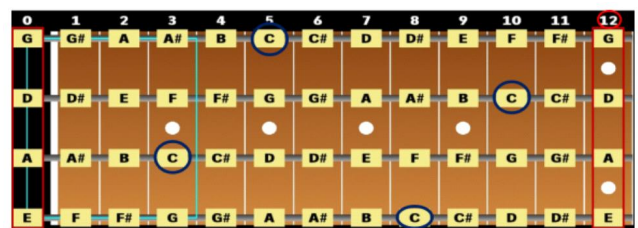
1. 서론

베이스 기타는 그 크기와 구조상 1프렛에서 12프렛 근처에 이르기까지는 엄지 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이 각각 하나의 프렛에서 연주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선율적인 부분이나 음의 배열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반음계적인 음이 배열되었을 시에는 운지를 검지, 중지, 약지, 제지의 순서로 연습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왼손가락의 번호를 1,2,3,4로 지칭하여 표기한다. 이러한 연습은 악기를 처음 접할 때부터 배우게 되는 연습 방법이다. 하지만 이 크로메틱(Chromatic) 연습 방법은 때때로 지겹고 연습량에 비해 효과도 즉시 나오지 않아 학습자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회피하게 되는 연습 방법이다. 그리고 많은 초급 단계나 일부 중급 과정의 훈련을 받은 학습자들도 막연히 연습만 할 뿐 이 방법이 실질적인 연주에 활용되는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며, 한편으로는 활용 사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코드 스케일을 통해 기본적으로 4개의 연속적인 반음이 배열된 스케일 사례와 간단한 워킹 베이스 라인에서의 응용 사례를 토대로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베이스 기타의 기본적인 지판 구조에서는 한번 지정한 포지션에서 네 개의 왼손가락이 크게 움직임 없이 상하로 움직여 모드 스케일을 쉽게 연주 될 수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각각의 프렛에 하나의 손가락만 배분하여 크로메틱 연습을 하면 기본적인 스케일을 연주 할 수 있다[1].



[그림 1] 베이스 기타의 지판과 음정

간단한 예로 [그림2] 에서와 같이 4번 줄 E현 5프렛 A음에서 A#, B, C에서 아래현인 3번 줄 A현 5프렛 D음에서 D#, E, F음으로, 또 아래로 2번 줄 D현에서 G, G#, A, A#으로, 끝으로 1번 줄 G현에서 C, C#, D, D#음을 연주하는 이러한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크로메틱 스케일 연습 방법이며, 위치를 이동하여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2]. 이렇게 연속적인 4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진 스케일의 사례를 통해 이 연습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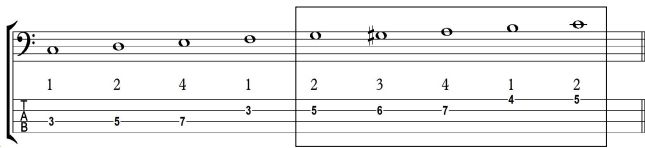


[그림 2] 기본적인 크로메틱 스케일 연습 방법

2.1 비밥 스케일(Bebop Scale)

2.1.1 메이저(Major) 비밥 스케일에서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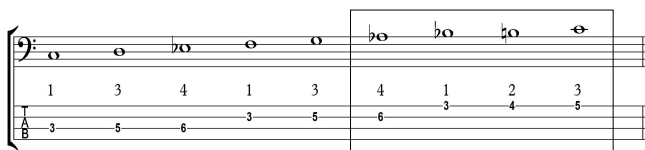
메이저 비밥 스케일은 메이저 스케일에서 #5음이 추가된 형태이다. [악보1]에서와 같이 완전5도 음에서 장7도 음까지 왼손가락이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출발은 왼손 2번 손가락부터 시작하여 1번, 2번 손가락으로 배열되어 있다.



[악보1] 메이저 비밥 스케일

이런 스케일에서는 왼손가락 2번으로 출발하여 같은 현에서 4번까지 사용하여 그 다음 현으로 이동하여 1,2번 손가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같은 현에서 연결되는 운지보다 훨씬 다양한 현의 이동과 1번이 아니라 다른 왼손가락에서 출발하는 크로메틱 연습 방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이는 단조로운 같은 현의 순차적인 크로메틱 연습보다 음계를 확장 시키고 코드 스케일 이론을 학습하는데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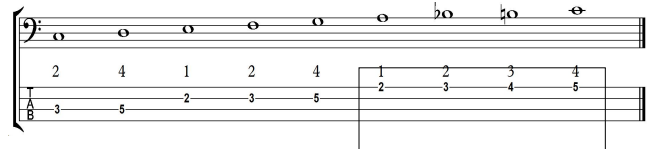
2.1.2 마이너(Minor) 비밥 스케일에서의 예시



[악보2] 마이너 비밥 스케일

기존의 자연 단음계에서 장7도 음을 추가한 마이너 비밥 스케일에서는 [악보2]에서와 같이 단6도 음이 왼손가락 4번에서 시작하여 다음 현으로 이동한 후 3번까지 순차적으로 배열된 형태이다. 이 역시 현의 이동과 4번에서 출발되는 크로메틱 연습 방법의 좋은 사례이다.

2.1.3 믹솔리디안(Mixolydian) 비밥 스케일에서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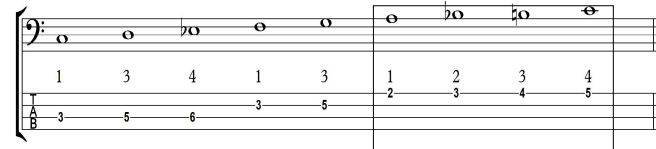


[악보3] 믹솔리디안 비밥 스케일

믹솔리디안 비밥 스케일은 장7도 음이 추가되어진 형태이며, [악보3]에서와 같이 장6, 단7, 장7, 완전8도 음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음계이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왼손가락 1번으로 시작하여 4번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크로메틱 연습 방법이 적용되어 연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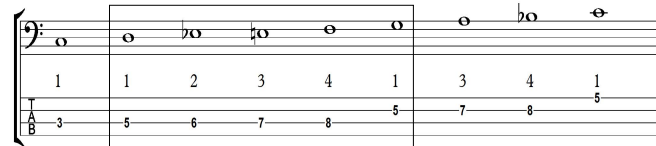
2.1.4 도리안(Dorian) 비밥 스케일에서의 예시

도리안 비밥 스케일은 장7도 음이 추가된 형태와 장3도 음이 추가된 형태가 있다. [악보4]와 같이 장6도 음에서 순차적으로 왼손 1,2,3,4번을 편하게 연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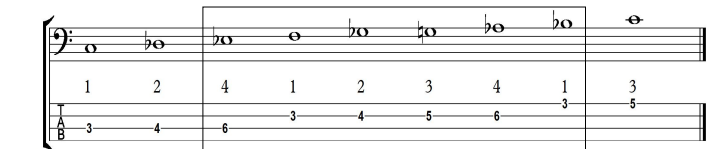
[악보4] 도리안 비밥 스케일(장7음 추가)

장3도 음이 추가된 도리안 비밥 스케일에서는 [악보5]에서와 같이 장2도 음이 왼손 1번으로 출발하여 순차적으로 완전4도 음까지 운지되며 다음 현의 완전5도 음까지 전개되는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악보5] 도리안 비밥 스케일(장3음 추가)

2.1.5 로크리안(Locrian) 비밥 스케일에서의 예시



[악보6] 로크리안 비밥 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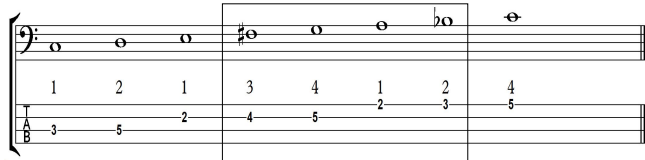
로크리안 비밥 스케일은 [악보6]에서와 같이 3개의 현에서 6개의 음이 순차적으로 배열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로크리안 스케일에서 완전5도 음이 추가되어 있다. 왼손 4번으로 시작하여 다음 현에서 1,2,3,4 번을 거쳐 다음 현의 1번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며, 여러 현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에서 크로메틱 연습의 중요

함과 의미를 알려주기 좋은 사례이다.

2.2 리디안 b7(Lydian b7)과 얼터드(Altered) 스케일

2.2.1 리디안 b7 스케일에서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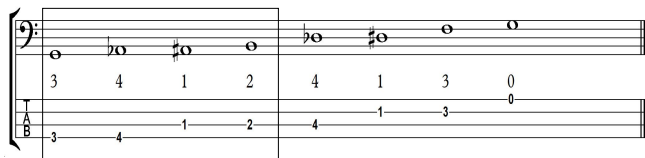
리디안 b7 스케일은 [악보7]에서와 같이 믹솔리디안 스케일에서 완전4도 음이 증4도로 변형된 형태이다. 증4도 음이 왼손 3번으로 시작하여 4번까지 같은 현으로 이동하고 다음 현에서 왼손 1,2번이 배열되는 형태이다.



[악보7] 리디안 b7 스케일

2.2.1 얼터드 스케일에서의 예시

얼터드 스케일은 재즈 마이너 스케일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VII alt7 코드로 리디안 b7 스케일을 가지는 VI7 코드와 같은 스케일 구성 음을 가지고 있다. Substitute Dominant 에서는 V7 과 bII7 코드로서 서로 대리하는 코드 관계이다[3]. 이러한 관계로 [악보8]에서는 [악보7]에서와 같이 왼손 3,4,1,2로 이어지는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악보8] 얼터드 스케일

2.3 재즈 음악 연주

2.3.1 워킹(Walking) 베이스 라인에서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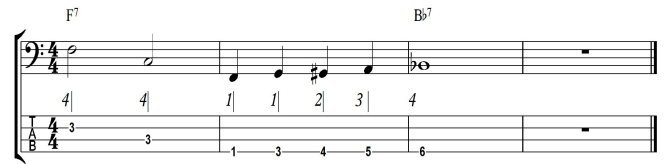
실질적인 연주에서 크로메틱이 적용되는 수많은 부분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재즈 워킹과 엔딩 연주 시에 쓰이는 순차적인 크로메틱 음들의 배열 몇 가지만을 알아본다.

[악보9]는 코드의 완전1도 음에서 완전5도 음, 다시 근음으로 되돌아오는 워킹 베이스 라인이다.

[악보10]은 블루스 워킹 베이스 연주 시에 빈번히 사용되는 연주 형태이며 왼손 1번이 F에서 G음으로 한번 이동 후에 순차적으로 연결된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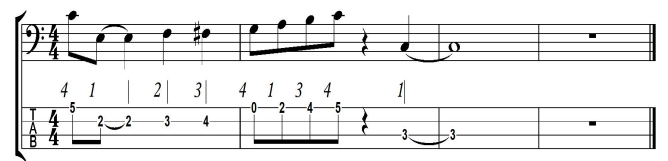
[악보9] 워킹 베이스 라인 1



[악보10] 워킹 베이스 라인 2

2.3.1 엔딩(Ending) 연주 섹션에서의 예시

다음의 [악보11]은 주로 재즈나 블루스 연주의 마지막 엔딩 섹션에 자주 사용되는 멜로디 이다. 왼손 4번의 완전8도 음에서 장 3도 음으로 이동되어 거의 순차적인 왼손 1,2,3,4로 이어진다. 단7도 음이 제외 되었지만 두 개의 현에서 크로메틱 연습 시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모습과 비슷하다.



[악보11] 엔딩 연주 섹션

3. 결론

모든 현악기의 지판에서는 순차적으로 연결된 음들이 악기의 기본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처음 악기를 접할 때 크로메틱 연습을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게 발전해왔다. 악기마다 크로메틱 연습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 방법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스 기타의 연습 시에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기본적인 왼손 훈련 방법의 하나인 크로메틱 연습 방법을 통해 이 훈련 과정이 추후에 어떠한 연주와 스케일에 적용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물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왼손 1,2,3,4의 순차적인 연주가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실제 연주 상황에 따라서 운지는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습 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거쳐 간 학습자들에게 본문 내용처럼 적용 사례를 함께 알려준다면 자칫 지루하고 힘든 연습 과정이 흥미와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https://blog.naver.com/xhearta/222374831352>
2025년 04월 20일 검색 인용
- [2] <https://blog.naver.com/sosobass/222893729160>
2025년 04월 20일 검색 인용
- [3] 한진승, “버클리 스타일의 재즈화성학” 예술, P115, 3월 2005년